



피아니스트 탁영아

‘STEINWAY & SONS’ 레이블

슈베르트 음반 발매

STEINWAY & SONS' 레이블에서 탁영아의 솔로앨범이 지난 11월 1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 동시 발매되었다. 이번 음반은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A minor, D. 784', 'G Major, D. 894' 두 곡이 수록되어 있다. 지난해 New York City의 스타인웨이 홀에서 진행된 녹음은 스타인웨이 Music and Media 총디렉터인 Jon Fedienr가 직접 총괄한 음반이다. 피아니스트 탁영아와 함께 이번 음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월간리뷰 독자들에게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와 요즘 근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뉴욕주립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탁영아입니다. 신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번에 신입생들이 꽤 있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인웨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소감도 이야기해 주세요.

스타인웨이 아티스트로서 이번 앨범을 녹음하면서 시작부터 완성까지 스타인웨이사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지원받았고요 (녹음, 에디팅, 장소, 피아노 등). 덕분에 음악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예리하고 실력 있는 스타인웨이 Music and Media 총디렉터이신 Jon Feidner와 이번에도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스타인웨이 아티스트 중 주목되는 아티스트를 선정해 스피리오펀드 리사이틀 (Spiriocast Recital)을 진행하는데요. 저의 리사이틀도 11월 내내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을 위해 이번 앨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앨범에서는 베토벤의 작품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소나타들에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슈베르트 소나타 가단조 (D.784)와 사장조 (D.894)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소나타는 작곡된 시기와 성격이 다르지만 각기 매력 있고 슈베르트가 갖고 있는 특유의 메시지가 잘 드러나는 훌륭한 작품들입니다. 저는 수년간 늘 연구하고 싶은 작곡가가 슈베르트였을 만큼 대부분의 중요한 리사이틀에는 꼭 슈베르트 소나타를 넣을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슈베르트가 좋았어요. 중학교 시절 어머니 차 안에서 슈베르트 피아노 오중주 '송어'를 끊임없이 들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지금도 운전하거나 산책할 때는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와 듀오, 실내악곡, 교향곡, 피아노곡 등을 먼저 찾아 듣습니다. 언제나 저의 플레이리스트에 있지요. 슈베르트 특유의 깊이 있으면서도 세련되고 순수한 아름다움에 오랜 시간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서 이번 앨범의 작곡가도 자연스럽게 슈베르트로 정했습니다.

슈베르트 '소나타 A minor, D. 784'와 'G Major, D. 894' 두 곡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세요.

사장조 D. 894 소나타는 예전부터 애정했던 곡이고 언젠가 깊게 공부하고 싶었던 작품이어서 주저 없이 선택했습니다. 가단조 소나타도 제가 몇 년 전부터 즐겨 연주하던 곡이었습니다. 1악장은 어둡고 비장하게 시작하지만, 제2주제는 정말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지요. 다른 두 악장도 참 매력 있는데, 자신이 아프고 난 다음 해에 작곡된 영향인지 어둡고 비극적인 성격이 짙게 나타나는 강렬한 곡입니다. 사장조 소나타는 슈베르트가 사망 2년 전에 작곡된 곡이라 그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출판된 소나타예요. 고전주의 소나타 형식에 의해 쓰였고, 상상력과 환상적인 요소가 짙어서 1악장에 'Fantasie'라는 부제가 붙어서 출판이 되었었고요. 후에 슈만이 '형식과 구상 모두가 완벽한 소나타'라고 일컬은 소나타예요. 제 학창 시절에 이 소나타의 연주를 듣고 1악장의 특이하고 천상에서 들리는 듯한 아름다운 선율들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언젠가 꼭 연주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곡입니다. 우러러보던 곡이라 오히려 설불리 접근하기에 쉽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음반 작업에 이 작품을 연주한 것은 저의 오랜 시간에 걸친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지난해 New York City의 스타인웨이 홀에서 녹음이 진행되었다고 들었어요. 녹음할 때 힘들었던 점은 없나

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녹음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Jon Feidner가 워낙 능숙한 프로듀서이고 음향이 좋은 뉴욕 스타인웨이홀과 최고의 컨디션을 지닌 피아노로 녹음할 수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음반 녹음이라는 작업이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 모든 것을 요구하고 녹음하는 곡에 깊게 파고들어 최상의 연주를 해야 했기에, 이 부분에서 오는 부담감은 계속 있었어요. Feidner와 저는 한음도 틀리지 않는 완벽함이나 에디팅이 많이 들어간 음반보다는 각 곡에서 음악이 가진 자연스러운 메시지를 생생하게 담는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슈베르트 특유의 끊임없이 흘러가는 멜로디와 가사의 의미와 shape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또한 슈베르트의 의도, 그리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음악 안에서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현재 미국 뉴욕주립대 팻츠담 크레인 음대에서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데요.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뉴욕에서의 일상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학생들과 함께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하하). 저는 항상 학생 한 명 한 명을 다 잘 알아가려고 노력해서 그들과의 레슨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과의 레슨, 그들의 연주, 오디션 준비로 항상 바쁘고 그 외에

학교 회의, 행정, 그리고 저의 연주로 학교에서의 생활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음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Potsdam's Crane School of Music)는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회가 거의 매일 밤 열리는 음악적으로 활발한 곳이라 제게 많은 자극이 됩니다.

연주자로서 무대에 설 때, 학생들과 함께 할 때, 교육자이자 연주자로서 갖고 계신 본인만의 철학에 관해 이야기해주세요.

개개인의 학생을 모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알아가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피아노만 잘 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여러 가지 지식을 두루 갖추고 성숙한 음악가이자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각 개인의 성격과 다양한 장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음악가라는 길을 걷는 것은 멀고도 힘든 길을 가는 여행이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에 어떠한 계기로 음악가가 되길 결심했는지, 음악 안에서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곤 해요. 개인적으로 가르침과 연주를 병행하면서 서로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학생에게도 항상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피아니스트와 교육자의 길을 함께 걷고 싶었던 것이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곡들을 배우면서  
 그 곡에 얽힌 역사, 배경 등을 배우고  
 각 작품을 파고들면서  
 음악 안에서 매일 배우고 깨닫는 것들...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더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매번 연주 활동을 할 때 아이디어와 영감은 어디에서 얻나요?  
 여러 가지 곡들을 배우면서 그 곡에 얽힌 역사, 배경 등을 배우고 각 작품을 파고들면서 음악 안에서 매일 배우고 깨닫는 것들...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더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음악회를 많이 다니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는 즐겁고 서로 서포트가 되기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공연장 중심으로 돌아가던 클래식 음악계에 새로운 공연 플랫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젊은 피아니스트답게,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춰 연주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할까요?

특히 팬데믹 이후에 더욱 다양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시대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적응과 변화 그리고 창의력에 관한 대화도 더 많이 하고요.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닌, 그것들을 인지하되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준비시키고 자신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으라고 독려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계속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긍정적인 힘과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인터뷰를 끝으로 월간리뷰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혼란스러운 이런 시기에 음악으로 하나 되어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번에 앨범 작업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피아노 앞에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슈베르트 소나타들을 연습하면서 아름다운 멜로디와 화성에 감동하고 그가 주는 선율에 위로받으며 참 잘 짜여진 소나타 형식 앞에서 감탄했지요. 앞으로도 저의 음악적 행보를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음반을 들으시는 청자분들도 감동과 행복함을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피아니스트 탁영아는 음악을 통해 이 세상을 배우고, 인생을 경험하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다.

“이번 음반 작업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음악을 제 손끝으로 만들어내고 연주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음악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황홀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연주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느껴질 만큼 행복했어요.”

피아니스트 탁영아가 선사하는 슈베르트의 선율은 마치 겨울의 고요하고도 깊은 분위기를 닮아 있다. 이번 음반은 그녀의 섬세한 연주로 슈베르트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연말의 고요한 밤, 그녀의 음악은 마치 시간을 멈추고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특별한 순간을 선물할 것이다.

글 김희영